



---

경제학과

행정학과

심리학과

사회학과

정치외교학과

스포츠레저학과

문화산업과 커뮤니케이션 연계전공

---

## 교육목적

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사회 현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비판 및 변화선도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지식인을 양성한다.

## 연혁

1981. 3. 1	인문사회대학 신설 : 경제학과(정원 60명) 신설	2009. 12.	대학원 응용사회과학과 응용사회학과로 명칭 변경
1984. 3. 1	인문사회대학을 문리과대학으로 명칭 변경	2011.	사회과학부 정원 30명 감원 (정원 210명) 사회과학부 정원 15명 증원 (정원 225명)
1985. 3. 1	사회과학대학 신설 - 경제학과를 본 대학으로 개편, 경제학과 석사과정 신설 - 행정학과(정원 40명), 법학과(정원 40명) 신설	2012. 2	사회과학부 정원 5명 감원 (정원 220명) 사회과학부 정원 13명 증원 (정원 233명) 전공을 학과로 명칭 변경 사회과학부 → 경제학과, 행정학과, 심리학 과, 사회학과, 정치외교학과 스포츠레저학부 → 스포츠레저학과
1985. 11.	사회과학연구소 신설	2013. 5	2014학년도부터 학과제로 전면 개편(모집정 원 244명) 경제학과(정원60명), 행정학과(정원50명), 심 리학과(정원50명), 사회학과(정원36명), 정치 외교학과(정원36명) 스포츠레저학과(12명)
1988. 3. 1	심리학과(정원 40명) 신설 행정학과, 법학과 각 20명 증원 경제학과 박사과정 신설	2014. 4	2015학년도 모집정원 감원 경제학과(정원 59명), 행정학과(정원 49명) 심리학과(정원 49명), 사회학과(정원 35명) 정치외교학과(정원 35명)
1989. 3. 1	사회학과(정원 40명) 신설 행정학과 석사과정 신설	2015	경제학과(정원62명), 행정학과(정원52명), 심 리학과(정원52명), 사회학과(정원37명), 정치 외교학과(정원38명) 스포츠레저학과(12명)
1990. 3. 1	정치외교학과(정원 30명) 신설	2016	경제학과(정원56명), 행정학과(정원46명), 심 리학과(정원48명), 사회학과(정원32명), 정치 외교학과(정원33명) 스포츠레저학과(12명)
1994. 3. 1	심리학과 석사과정 신설		
1995. 3. 1	법학과 석사과정 신설		
1996. 3. 1	학제개편 : 사회과학대학을 2개 학부 290명 으로 개편 - 사회과학부 : 경제학, 행정학, 심리학, 사회학, 정치외교학 전공(정원 230명) - 법학부 : 법학전공(정원 60명)		
1997. 3. 1	사회학과,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신설		
1998. 3. 1	사회과학부 정원 10명 감원 : 230명에서 220 명으로		
2000. 3. 1	사회과학부 5명 감원(정원 215명)		
2000. 3. 1	행정학과, 사회학과, 정치외교학과를 응용사 회과학과로 통합		
2000. 3. 1	응용사회과학과 박사과정 신설		
2005. 6	사회과학대학 법학부 법과대학으로 승격		
2006. 5	스포츠레저학부 신설(정원 15명)		
2007. 3. 1	정치외교학과 석 · 박사과정 분리		
2007. 9. 1	행정학과 석 · 박사과정 분리		

## 주요행사

에세이 경진대회, 토론대회, 학술세미나, 초청강연회, 고시 특강, 기타 소학회 활동

**조직**

직책	사무실	전화
학장	율곡관 307-1호	2730

**업무안내**

업무안내	사무실(구내전화)
교학업무, 수업지원, 학생활동지원	율곡관 307호(2731, 2732, 2736, 2775, 2792)

**대학소개**

사회과학은 폭 넓은 사고와 안목, 종합적 판단, 분석과 예측 그리고 이에 근거한 현실적 대안 제시의 능력을 키워주는 학문분야이다.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도구적 지식체계를 탐구하는 사회과학대학은 경제학과, 행정학과, 심리학과, 사회학과, 정치외교학과, 스포츠레저학과로 구성되어 있다. 사회과학대학은 이들 학문들이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어 대학 내에서 서로 다른 학과를 이수할

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설하였기 때문에 사회과학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할 수 있다.

또한 사회과학대학은 21세기를 맞이하여 변화되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각 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인재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제 사회과학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함과 동시에 특성화함으로써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창의적으로 봉사하는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다.